



보도자료

책임자 김해식 실장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41)
 작성자 이승준 연구위원(3775-9030)
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3. 9. 22(금) 조간부터
 (온라인 2023. 9. 21(목) 12:00부터)
 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(Ⅲ)』 :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』 CEO Report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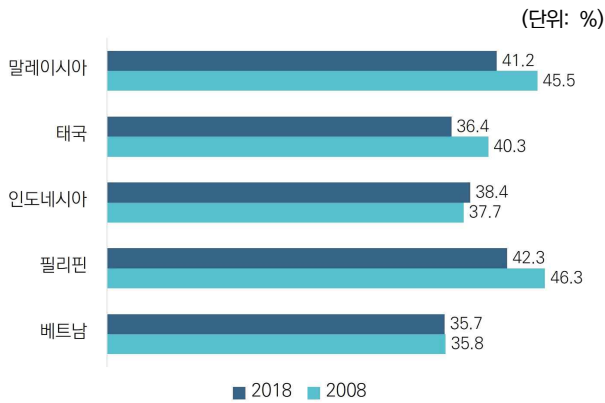
“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서는 중산층의 성장으로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, 도시 기반시설 개선으로 자동차와 배상책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”

- 보험연구원 김해식·이승준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)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교·평가한 『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(Ⅲ):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』을 발표함
- (논의 배경) 보험수요는 중산층의 증가를 통해 창출되는데 글로벌 중산층의 증가를 주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, 특히 아세안 5에 주목함
 - 아세안 5(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베트남)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(ASEAN)의 핵심으로 중산층의 급성장을 통한 보험시장의 성장이 기대됨
 - 아세안 5는 ASEAN 전체 인구의 87.3%와 GDP의 83.4%를 차지하며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ASEAN에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함
 -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도 ASEAN 지역이 14개 사로 가장 많으므로 이 지역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수요 및 공급 관련 세부지표를 통해 살펴봄

□ (보험수요 측면)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수입보험료가 가속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선 아세안 5에서 중산층의 성장은 국가별 보험시장 성장을 차별화하는 요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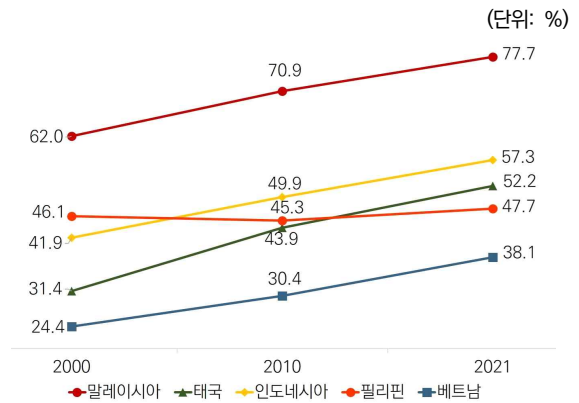
- 보험수요는 경제성장에 더하여 중산층이 성장해야 창출되며,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인구의 증가가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함

〈그림 1〉 소득 불평등 지수 추이



자료: World Bank Data

〈그림 2〉 도시화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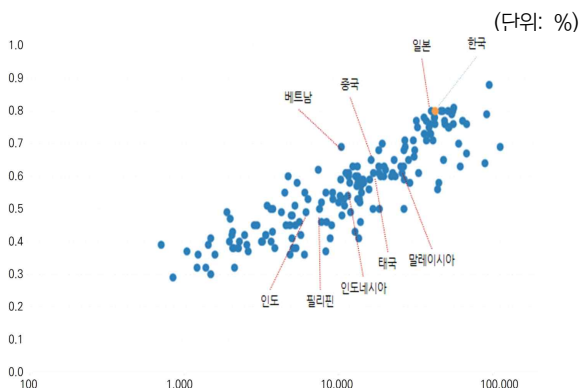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UNCTADstat

□ (보험공급 측면) 인적자본과 모바일 상거래 및 금융거래 비율, 시장 진입 관련 규제 투명성과 시장경쟁이 보험시장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

- 높은 인적자본지수와 금융거래의 40%를 차지하는 IT 침투율, 규제 투명성 개선, 활발한 시장경쟁(p.8 참조)은 공급 인프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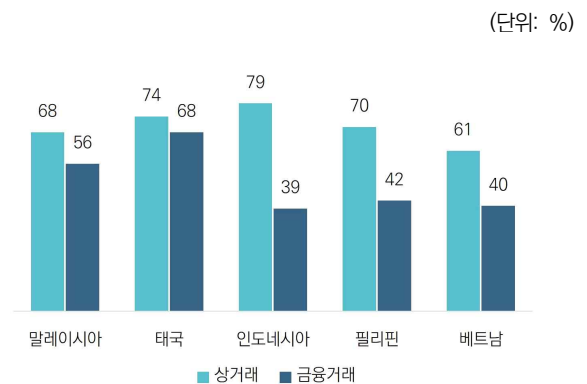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인적자본지수



주: Y축은 태아가 18세가 될 때 기대되는 교육·건강 정도, 지수 0~1 사이의 값, X축은 1인당 GDP의 로그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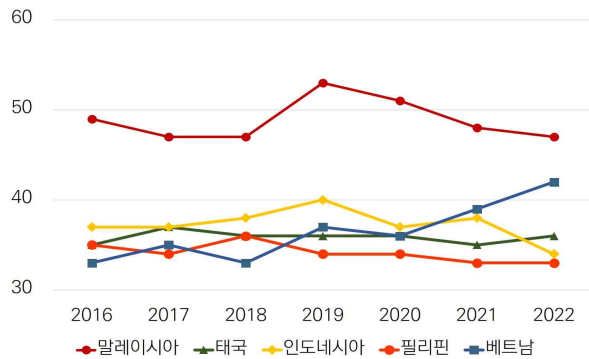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Bank Data

〈그림 4〉 상거래 및 금융의 모바일 거래 비중(202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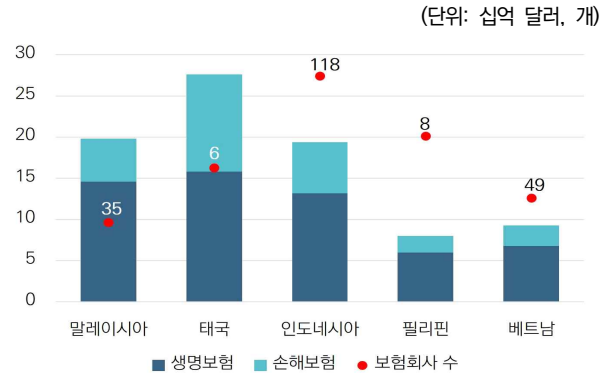
자료: ASEAN-KOREA CENTRE(2022)

〈그림 5〉 투명성의 변화(2016~2022)



주: 지수는 0~100. 높을수록 보다 투명하다고 평가함
 자료: Transparency International(2023)

〈그림 6〉 아세안 5 보험시장 규모 대비 회사 수



자료: AXCO

□ (인구구조와 사회보장제도) 젊은 인구구성과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지출에서 민영보험 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음

- 경제개발 초기단계로 투자형 저축보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보장성 수요와 연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건강과 소득보장 수요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사회보장지출과 민영보험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데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개발단계에 있는 아세안 5의 민영보험을 통한 대응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

□ (평가결과) 아세안 5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험시장을 상대 평가한 결과, 수요 측면에서는 베트남이, 공급 측면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

〈표 1〉 아세안 5 보험시장 평가

구분	말레이시아	태국	인도네시아	필리핀	베트남
보험수요	○	○	●	●	●
보험공급	●	●	○	○	●

주: 1)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를 왼쪽부터 배열함
 2) '상 ●', '중 ○', '하 ○'로 평가함
 3) 아세안 5 국가들만의 상대평가 결과이며 상세 통계는 첨부 자료의 부록을 참조하길 바람

- 경제 규모에서는 인도네시아, 필리핀과 베트남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산층 성장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, 그리고 베트남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음
- 인적자본과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이 상

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,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보험시장은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됨

□ (시사점) 아세안 5를 중심으로 살펴본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은 중산층의 성장과 공급 인프라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고도 성장 시장임

- 아세안 5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보험수요가 향후 보험 시장을 주도할 것임
 - 중산층의 가족 소득 안정화 니즈는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임
 - 도시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대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수요도 증가할 것임
- 보험회사가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과 규제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
 - 수준 높은 인적자본과 IT 침투율을 활용한 상품과 채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ASEAN 전체를 놓고 볼 때, 아세안 5에 대한 직접투자와 싱가포르를 통한 거점 진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,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은 물론 요양·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최근 금융당국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허용 추진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 - 그동안 해외진출은 대형 보험회사의 전략적 옵션으로 여겨져 왔지만, 중·소형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할 시점임

첨부: CEO Report 『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(III):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